

## 아시아 분업구조 변화의 의미와 대응 전략 - 동남아시아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김두영 (金斗寧)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통상갈등 그리고 브렉시트 등 통상 환경변화가 주요국의 산업구조와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글로벌가치사슬까지 흔들어 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가 세계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1980년대 미국, 독일과 함께 3대 체제를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했던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을 거쳐 중국 등 동북아로 확산되면서 아시아의 위치가 확고부동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의 제조부문 역량이 동남아로 확산되면서 아시아가 세계제조업의 중심지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는 한·중·일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경쟁 구도를 가지게 될까 하는 점이다. 아시아 국가들간 분업구조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분야에 특화시켜야 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 1980년대의 아시아 4 마리 용으로 불렸던 한국,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의 성장 패턴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브릭스를 이끌었던 중국의 산업화 전개과정을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의 성장 전망과 아시아 주요국의 분업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을 전제로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 분야와 진출 타겟시장 그리고 진출전략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 도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ASU(Arizona State University)의 Thunderbird 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KOTRA에 입사하여 2019년까지 32년간 근무하였으며, 우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브라질과 독일 등에서는 현지에서 주재하면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현장에서 경험하였다. 국내에서 전략사업본부장 등 핵심사업을 주관하면서 방콕, 호치민, 싱가포르 등의 주요 전시회와 한류 박람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저서는 <<미국시장 이렇게 하면 열린다>>, <<올 댓 브라질>> 그리고 UN 연구보고서인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역량 제고>> 등이 있다. 현재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지평 고문으로도 활동중이다.

**Date & Time: November 5<sup>th</sup> (Tues.) 2019, 12:00-13:00**

**Place: Room 406, SNUAC (Bldg#101)**